지역 소식통

부안 위도면, 추가접종 대상자 방문접종 추진

위도면은 보건지소 및 위도보건지소와 협력하여 거동 및 이동수단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고령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백신 추가접종 대상자 방문접종을 추진했다.

접종은 12월 20일 ~ 21일까지(2일간) 오전 10:00~16:00까지 진행했으며,접종인원은 코로나19백신 기본접종 완료자 300여명으로 본인이 접종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실시했다.

특히 섬(도서)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여객선을 타고 육지까지 나가기 어려운 환경과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등 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문접종을 추진하였으며, 사전에 추가접종 희망자를 파악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마을별로 접종 시간대를 배분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실시하였다.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백신 부작용 등 이상반응에 만전을 기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의회-군,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21일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집행기관과 인사운영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기관 상호간 인사요인 발생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 협의 후 통합 운영, 후생복지 군 통합 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와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해 부안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사짓고 월급받으세요"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2022년 시행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들의 소득 대부분은 가을철에 편중돼 있어 많은 농업인이 대출을 받아 봄철 영농준비 자금과 자녀 학자금,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수매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인들의 소득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 수매에 약정된 농가에 한해 출하할 예상소득의 60%를 농가에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고 수매 후 농협에 원금을 상환하면 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이며 지급액은 재배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가들의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더욱 가깝게 즐기는 체육시설 '호응'

고창군,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비상

고창군이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명실상부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21일 고창군체육청소년사업소에 따르면 관내에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이 마련되면서 여가 활용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34억여원이 투입된 '상하체육테마공원'은 지난해 준공돼 상하 면민들의 건강증진 기여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생활축구경기장 시설 개선사업'은 축구장 인조잔디, 조명 및 관람석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고창군이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명실상부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도 100억여원을 들여 체육관, 도서관, 목욕탕, 일자리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주민들이 여가공간과 산업단지 입주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역시 전지훈련단의 체계적인 훈련장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20억원을 들여 내·외부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지상2층 시설로 가족단위 체험형 레포츠를 제공함으로써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 친화 인증기관' 선정

정읍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 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출산·양육을 장려하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시는 2016년 처음으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이후 2019년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을 인증받았다.

올해로 가족 친화 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재인증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서류심사와 재직자 온라인 설문,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 한국경영인증원의 현장 심사를 거쳤다.

심사 결과 가족 친화 재인증에 성공해 2024년 11월까지 3년간 가족 친화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유연근무제도(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도입과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복지 혜택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3일간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시장은 21일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안전보장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에 동참했다.

"여성 인권과 안정보장을 위해"

유진섭 정읍시장,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보장 챌린지 동참

유진섭 시장은 21일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안전보장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에 동참했다.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여성들의 생명권과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 형성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아프간 여성과 연대하는 의미를 담아 '#Save Afghan Women' 문구를 포함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챌린지에 참여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 시장은 이환주 남원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유 시장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함께 지켜주세요'라는 손글씨로 적은 메세지를 전하며 아프간 여성들의 존엄과 생명,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했다.

유진섭 시장은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란다"며 "정읍시도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과 안정보장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섭 시장은 다음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김승수 전주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김철수 속초시장을 지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자원봉사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은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 지자체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자치단체 부문에서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시는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과 교육,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추진, 공무원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재능기부 축제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시설 개보수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선도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을 100% 이상 확보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의 맞춤형 자원봉사와 찾아가는 전문봉사단 활동, 청소년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등 정읍시만의 특색있는 사업 추진으로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